

TV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코로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특선 앙코르 인간극장 우리 결혼해요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 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스텝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11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네트워크 특선 필름 55 바른말 고운말	00 수목드라마 <아름답다>(재)	00 KBC 생활뉴스 20 한국의 맛
12		00 KBS 뉴스 12	05 비타민	00 SBS 12 뉴스 50 닥터365
1	50 뉴스특급	00 KBS 명품역사관 역사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10 체인지업 도시탈출(재)	15 MBC 스포츠 2015 울산 진해 세계비치발리볼대회
2		00 우리말 겨루기 55 아생일기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생활의 발견(재)	30 단독 키즈스쿨
3	00 직언직실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5 튼튼생활제초	45 후토스(재)	00 MBC 뉴스 10 보름달 공장 40 헬로키즈 싸이결스
4	2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방학특선 동물의 왕국 야생복귀 프로젝트	40 자동차부채상 위기 40 TV 유치원 콩다콩	25 일일특별기획 <딱 나같은 딸>(재)
5	4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도그림자	10 코파 반장의 동화수사대(재) 40 동물의 세계(재)	00 MBC 이브닝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7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 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8	20 아내가 났다(재)	25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30 반라동물극장(단편) 55 시간을 달리는 TV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나같은 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명견만리 <알리기가 사라진다 1편> 55 국민대결상 우리끼리	00 수목 드라마 <아름답다>	00 수목미니시리즈 <밤을 걷는 선비>
11	00 구원의 밥상	00 KBS 뉴스라인 40 세계의 명문 이튼스쿨	10 해피 투게더 여름스페셜	15 경찰청 사람들 2015
12	40 카톡쇼 X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림 유적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35 이말! 스페이스 정글	14:15 정글북 2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
05:30 건강한 아침	09:40 달라졌어요	14:30 마틸다사	19:0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초능력 특공대	19:30 EBS 뉴스
06:10 세계의 눈(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두키 탐험대	19:50 청춘! 세계도전기
07:00 뽀빠에 친구(재)	11:10 다큐 오늘	15:30 뽀빠에 친구	20:40 다큐오늘
07:15 책과 평화	11:20 세계테마기행	15:45 부흥! 부흥! 브루미즈	20:50 세계테마기행
07: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명 유치원(재)	(오스카에서 우릴까지 2500km 대장정)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16:20 원더볼스	21:30 한국기행 <지리산 계곡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3:00 역사채널e	16:30 우당탕탕 아이쿠	21:50 EBS 스포츠 프로젝트
08:20 로보카 폴리(재)	13:10 초등 6학년 여름방학생활	16:45 책과 땅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8:35 방귀대장 뽀빠이	13:30 초등 5학년 여름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뽀빠이(재)	23:35 글로벌 가족정하기
08:50 코코몽 3	13:50 초등 4학년 여름방학생활	17:15 풍선 꼬끼리 발루보	24:05 역사채널e
09:05 원더볼스(재)	14:10 배움 너머	17:30 두다다콩	24:10 EBS 스포츠라이프 공감 1.2
09:20 풍선 꼬끼리 발루보		17:45 로보카 폴리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II-일파개념>	12:15 올림포스 <국어II-일파개념>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13:05 수능특강 light <영어-듣기>
01:40 " <화통과 통계>	14:00 2016 수능완성 <국어a>
02:30 " <기하와 벡터>	14:50 올림포스 <화통과 통계>
03:20 " <수학II>	15:40 " <기하와 벡터>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수학II>
05:00 뉴탑스런 <화학I>	17:20 " <기하와 벡터>
06:00 " <지구과학I>	18:10 2016 N제 <수학B>
06:40 " <세계지리>	19:20 " <세계사>
07:30 " <법과 정치>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08:2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20:50 2016 인터넷 수능 <수학B>
09:10 " <이은주의 수학II>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10:10 2016 수능완성 <영어듣기>	21:50 " <문학 B형>
11:00 " <수학I B>	22:30 박범의 이슈로 만성은 경제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40 초등 2년 EBS 여름방학생활
07:30 경찰직 공무원 시험대비강좌	16:0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08:30 무역영역 급수 시험대비 강좌	16:20 초등 4년 EBS 여름방학생활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6:40 초등 5년 EBS 여름방학생활
09:10 TV 중학 <수학I(하)>	17:00 초등 6년 EBS 여름방학생활
09:50 " <영어I>	17:20 만점왕 문제풀이 <전과목 6-1>
10:30 " <도덕2>	18:00 TV 중학 <수학3(하)>
11:10 " <수학2(하)>	18:40 " <영어3>
11:50 " <영어2>	19:20 필독 중학 국어 <소설>
12:30 EBS 특강	20:00 EBS 인문학 특강
13:00 데일리 리얼링 수학	20:50 EBS 기획시리즈
13:10 중등산공 <사회1>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3:50 " <사회2>	22:00 중등산공 <역사 2>
14:30 " <역사I>	22:40 " <과학3(하)>
15:2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23:20 필독 중학 <사회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3일(음 6월 8일 庚子)

48년생 동반자의 도움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60년생 행복의 마당에 들어서서 길목에 놓여 있다. 72년생 지름길로 가려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84년생 해담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74, 86	42년생 여러 사람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원만하다. 54년생 성과에 흠뻑 취해서 매우 즐거워하는 형상이 비친다. 66년생 이득을 볼 수 있다. 78년생 국면의 초석을 다지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84
49년생 예상 했던 것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느니라. 61년생 만사를 제쳐 두고 도와줘야 할 일이 생긴다. 73년생 기본적인 원리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85년생 중차대한 수업을 맡게 되는 대국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02, 20	43년생 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면서 지연되는 판세이리라. 55년생 주관적 심리를 배제하고 실상에 충실함이 옳다. 67년생 서로 간의 처지가 뒤바뀔 수도 있느니라. 79년생 당혹한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8, 25
38년생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다면 모순이다. 50년생 정확히 알아야만 하느니라. 62년생 활기찬 하루가 될 것이다. 74년생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 하자. 86년생 다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의 관점이다. 행운의 숫자 : 13, 31	44년생 현실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공허한 생각에 그친다. 56년생 손가락을 다루어 실행해야 하느니라. 68년생 선인이 형성되어 발전적인 상황으로 작용하리라. 80년생 더 할 수 없이 경사스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2, 74
39년생 공이 무너질까 두렵다. 51년생 열려할 정도는 아니니 무시해도 된다. 63년생 흐름을 뒤바꿀만한 위상이다. 75년생 활로가 개척 될 것이다. 87년생 기다리던 소식 대신 더 중차대한 위치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45, 76	45년생 재수가 있는 날이니 기회를 잡아보자. 57년생 외관에 이 끌리던 대세를 가능하게 함들어진다. 69년생 준비가 아니라 강도의 문제이리라. 81년생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7, 80
40년생 의외로 복잡한 국면이다. 52년생 노출된 외관까지 신경 쓰지 않으면 아니 되는 한테에 놓여 있느니라. 64년생 되새겨 볼수록 깊은 뜻이 있으리라. 76년생 넘치려는 것은 반드시 통제해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83, 90	46년생 눈앞에 재앙이 다가오고 있으니 면책할 길을 찾아라. 58년생 역경은 경험으로써 극복 될 수 있을 것이리라. 70년생 과거의 행적과 연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82년생 유명무실한 것에 미련을 들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39, 28
41년생 시작이 올바르게 성과가 알차다. 53년생 할 말이 있다면 앞뒤 가리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옳다. 65년생 절실한 문제에 봉착한다. 77년생 변경하여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고민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6, 15	47년생 진행 방향은 다르지만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59년생 시도한다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판세이다. 71년생 목이 마를 때 물을 갖다 주는 이가 보인다. 83년생 사리에 밝은이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92, 0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고생한 배우들 위해 잘 만들자고 생각했죠”



내달 5일 개봉 영화 ‘베테랑’ 류승완 감독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다시 나오고 자연스럽게 유해진, 오달수, 정운인, 장운주, 오대환, 김시후, 정만식, 엄태구, 배성우, 유인영 등 수많은 배우가 출연했으며 많은 액션배우도 참여했다.

“많은 분이 치러준 밥상에 손가락만 얹었다는 ‘명 수상소감’을 남긴 배우 황정민도 현장에서 고생한 배우들의 노고를 언급했다.

“이 자리에 없지만 촬영현장에서 고생한 많은 배우가 떠오릅니다. 그분들 덕분에 이 자리가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베테랑’의 많은 배우는 적재적소에 배치돼 제 몫을 해냈다. 그 중 악당 조태오의 오른팔 최상무를 연기한 유해진에 대해 류 감독은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라고 찬사를 보냈다.

“유해진 선배가 악역을 맡으면 그냥 악당으로 보이지 않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특별한 설정을 주지 않아도 한 인물의 스펙트럼을 넓게 표현하는 배우입니다.”

악역 조태오 역을 맡은 유인영은 힘을 빼고 연기하려 했다고 소개했다.

“광기 어린 악역이 전형적일 수 있을 것 같아 힘을 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오늘 영화를 처음 보니 그래도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모델 장운주는 이번 영화에서 수사팀 홍일점 미스봉 역할로 스크린에 데뷔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보여준 화보 속 화려함과 다르게 트레이닝복이나 티셔츠에 반바지 입을 미스봉은 원래 제 모습이예요. 화장기 바리고 평소 저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재벌 3세와 그에 맞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구도가 뚜렷한 영화인 만큼 간담회에서는 재벌가와 연루된 특정 사건을 참고했는지 질문도 나왔다.

이에 류승완 감독은 “무엇을 봤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웃었다.

“저도 뉴스에 보도 실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갖는 분노, 상실감을 많은 분이 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액션 영화는 누구를 상대로 싸우는지가 중요하니까 보편적인, 합당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악당을 생각했고 조태오라는 괴물 같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개인보다는 괴물을 만든 시스템을 보여주려 했죠.”

tvN ‘오 나의 귀신님’ 알콩달콩 로맨스

“내 안에 순애 있죠”

“내 연기는 ‘극한직업’”

‘처녀 귀신 신순애’ 이중인격 열연 박보영

‘요리사 강선우’ 안정감 있는 연기 조정석

케이블 채널 tvN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방송을 앞두고 주연 박보영(25·사진)이 최고 수준 출연료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때 적지 않은 이들이 의구심을 품었다. 박보영이 그동안 TV 드라마에 아역이나 조연으로 출연한 것이 전부인데, 그마저도 7년 전 특별 출연한 SBS ‘스타의 연인’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이다.

이달 3일 처음 등장한 박보영은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털어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몸값 이상의 활약을 보이고 있다. 드라마는 유명 요리사 강선우(조정석 분)의 레스토랑에서 주방 막내로 일하던 나봉선(박보영)이 처녀 귀신 신순애(김슬기 분)에게 빙의되면서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일을 그린다. 소심하고 주눅이 든 주방 보조와 음탕한 처녀 귀신을 순식간에 오가는 박보영의 연기에 시청자들과 누리꾼들은 연일 박수를 보내고 있다. 요즘 TV 속 박보영을 보고 있다면 MBC TV ‘킬미 힐미’에서 7개 인격을 가진 다중인격 소유자를 완벽히 연기했던 배우 지성을 보는 듯하다.

“정말 제 몸에 스위치가 있어서 봉선과 순애를 오갈 때마다 그 스위치를 껐다가 켜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봉선, 내일은 순애 이렇게요. 촬영날마다 그날 첫 촬영 장면이 순애 역이라고 한다면 집에서부터 제가 순애라고 생각하고 나와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기자간담회장에서 만난 박보영은 “두 인물을 왔다갔다하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다”라고 말했다. 박보영 연기는 특히 눈동자에서도 움직임이 이글거리는 순애로 탈바꿈할 때 빛을 발한다. 곱다랗고 작은 얼굴에 순진무구한 소녀 같은 배우는 원래 눈도 맞추지 못했던 스타 요리사 강선우에게 인기거나, 잡자리를 함께하자고 요구하는 장면도 사랑스럽게 소화한다.

“작품을 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내려놓은 것도 있지만, 연기하면서 생각해보니 제 안에 그렇게 남자에게 들이대는 모습이 있었나 봐요. (웃음) 조금씩 연기가 자연스러워지면서 제게 원래 그런 면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됐어요.”

박보영은 “빙의 된 봉선이 강선우에게 들이대는 모습을 시청자들이 사랑스럽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연기하는 데 염두에 두고 있다”라면서 “혹시 반감을 불러일으키거나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선을 유지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배우 조정석(35·사진)은 요즘 자신의 연기를 ‘극한직업’이라고 칭했다.

“정말 ‘광대승천’(즐거움 마음에 얼굴 광대가 자연히 솟아 오르는 모습) 안 하려고 노력하는 데 잘 되질 않네요. 박보영이 정말 귀엽다 보니 제가 엔지(NG)도 많이 내요.”

조정석은 지난 3일 방송을 시작한 케이블채널 tvN 코미디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에서 반듯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스타 요리사 강선우로 출연 중이다. 그는 남자를 밝히는 처녀 귀신에 빙의된 주방보조 막내 나봉선(박보영 분)의 밀도 끝도 없는 도발을 참아내느라 근육을 치르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정석은 이날도 촬영 당시를 곱씹으며 솟아오르는 광대를 누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조정석은 “박보영은 실제로는 애교가 없다고 말하지만, 거짓말도 느껴질 정도로 애교가 절절 넘치게 연기한다”라면서 “봉선이 들이대는 순간이 정말 다양하게 특히 안길 때 밀어내기 너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보영이 정말 맞춤형 웃음 얻은 것 같다”라면서 “저도 대본에 묘사된 성격처럼 성절도 마구 내야 하는데 박보영 애교에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덧붙였다.

‘오 나의 귀신님’이 인기를 끌면서 박보영에게 유독 관심이 쏠린 것은 사실이지만 조정석도 자신의 몫을 잘 해내고 있다. 조정석은 드라마 초반에만 해도 박보영 활약과 비교하면 특징 없는 ‘나쁜 남자’ 연기를 펼친다는 느낌을 줬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그 역할을 안정감 있게 소화하면서도 변화하는 감정을 세밀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조정석은 “워낙 제가 코미디를 좋아한다”라면서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작품에 임한다”라고 강조했다.

셋이면서 돌이기로 한 강선우-나봉선-신순애 로맨스가 붙는 가운데 특히 그 중심에 선 강선우의 감정선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출자의 설명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재현 PD는 “결국 강선우의 관점에서 감정선을 끌어 놓아야 하지 않나 싶다”라면서 “각각 감정이 있었지만, 선우가 좋아했던 대상은 누구인지, 지금 좋아하는 대상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연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